

# 스타열애, 꼭꼭 숨겨라...알려지면 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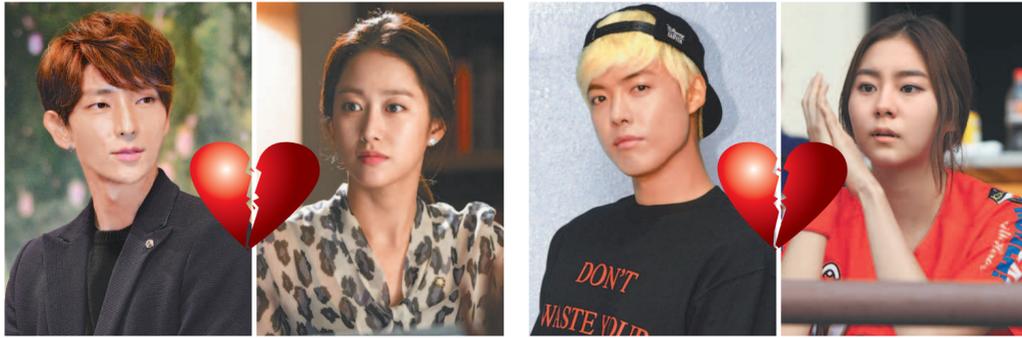
## 공개 연인들 잇단 결별...왜?

이준기-전혜빈, 열애 인정 4개월만에 결별 강남-유이, 이성경-남주혁도 공개 후 '남남' 뜨거운 시선·팬심 거센 반응 부담으로 작용

공개연인을 선언한 스타 커플이 얼마못가 결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준기·전혜빈은 연애사실이 공개된 지 4개월 만에 헤어졌고, 강남과 유이는 불과 18일 만에 결별소식을 전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각자 바쁜 일정 탓"이라고 결별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 말뭇말뭇 속사정이 있다.

최근 결별 소식이 전해진 배우 이준기와 전혜빈은 4월 연인 사이임을 밝혔지만, 공개연애 4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두 사람은 네 번째 열애설이 불거지고 나서야 "2016년 상반기부터 연인 사이가 됐다"고 가까스로 인정했던 만큼 이별을 두고도 아쉬움과 궁금증을 더 모았다.

이성경·남주혁도 비슷한 경우다. 올해 1월 막을 내린 MBC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에 출연한 인연으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4월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연애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뒤인 8월 초 "연예계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결별의 이유로 "각자 스케줄이 바빠 자연스럽게 관계



이준기 전혜빈 강남 유이

가 소원해졌다"고 밝혔다. 교체한지 3개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별한 이들도 있다. 강남과 유이. SBS '정글의 법칙'을 함께 촬영하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7월 중순 "연인이 됐다"고 공개했지만 8월 초 다시 "이별했다"고 알렸다. FT아일랜드 최중훈과 손연재 역시 6월 열애사실이 공개됐지만, 7월 중순 헤어진 사실이 8월 초에 알려졌다.

SNS가 활발해지면서 스타들의 연애는 더는 숨길 수 없는 일이 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SNS 감시망"이 가동되고 있다. 송혜교·송중기 커플처럼 동반 여행을 목격한 해외 팬의 'SNS

제보'가 국내로 유입되는 환경에서 유명 스타들이 교제 사실을 숨기려던 여간 어렵지 않다.

이렇다보니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면 거짓 해명보다 솔직히 관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공개연애를 하겠다"고 밝히는 20대 스타들도 자주 목격된다.

하지만 정작 연인 사이가 공개되고 나서는 상황이 다르다. 뜨거운 관심, 가는 곳마다 뒤따르는 연인의 이통은 '현실'이자 '꼬리표'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어느 행사장에 방문했을 때 연인의 이름을 빗대 'OOO도 반한 미모' 같은 수식으로 자신의 기사가 도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부담은 주위의 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팬들의 정서를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난다. 특히 아이돌이나 한류스타는 더 하다. 스타의 공개연애를 반대하거나 교제 상대를 향한 악의적인 반응을 내보이는 팬들의 반응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갑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팬심'을 스타도, 기획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공개 연애에서만은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다. 결혼까지 계획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연애는 어떤 식으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MBC가 9월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에 앞서 MBC 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삼양동 MBC에서 김장경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MBC 내달 4일 총파업 '무한도전'도 못 본다

MBC가 2012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방송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도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노동조합)는 29일까지 서울 등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의행위 확대(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조합원 총 1758명 중 1682명(95.7%)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68명(93.2%)이 찬성했다. 총파업 시점은 9월4일 자정부터다.

이번 파업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5년 전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30일 첫 방송된 수목드라마 '병원선'과 9월25일 방영 예정인 월화드라마 '20세기 소녀'는 예정대로 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MBC 소속의 현장 스태프들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돼 있어 향후 정상적 촬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오빠생각' '세모방' '복면가왕'의 연출자들도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결방의 현실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총파업이 시작되는 9월4일 이후부터는 스페셜이나 재방송으로 대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취재기와 PD, 카메라 기사, 아나운서 등 400여명이 제작거부에 돌입했으며, 라디오국도 동참해 FM4U의 '세상을 여는 아침'이재은입니다'와 '굿모닝FM 노홍철입니다' 등이 결방되고 음악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상태다.

2012년 파업 당시에도 '무한도전'은 연출자 김태호 PD의 부재로 7주 동안 방영되지 않고 스페셜로 대체된 바 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도 김도훈 PD의 파업동참으로 19회와 20회 대신 스페셜 방송이 전파를 탔다.

허유신 노동조합 홍보국장은 30일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이 많아 당장 결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5년 전보다 강도가 높아 9월4일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tvN '아르곤' 배우들 "본방사수 해주세요"

## 유아인, 이창동 영화 '버닝'으로 돌아온다

### 9월 중순 크랭크인 가능성 '버닝' 내년 상반기 개봉 예고

배우 유아인이 이창동 감독과 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준비 끝에 촬영을 시작하는 영화 '버닝'(제작 유한회사버닝프로젝트)이다. 제목 그대로 열정적인 배우와 거장 감독의 뜨거운 만남이다.

유아인의 출연설이 나온 후에도 1년의 준비기간을 더 거친 '버닝'은 이르면 9월 중순 촬영을 시작한다. 3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유아인이 아직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돌발상황이 없다면 이창동 감독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다. 제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촬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유아인은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더욱이 유아인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버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연기활동



유아인

을 망설이게 했던 어깨부상과 반복되던 징병검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면제 받은 유아인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작품이 '버닝'이 됐다.

'버닝'은 유아인이 영화 '베터랑'과 '사도'의

연속 흥행으로 한창 주가를 올릴 무렵 선택한 작품이다. 그만큼 의욕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이창동 감독과의 첫 만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감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0년 내놓은 '시'를 끝으로 신인 감독들의 데뷔작 기획과 제작에 주력한 이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8년 만에 내놓는 신작 '버닝'이다.

영화는 한 여자와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이창동 감독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아인과 더불어 또 다른 출연 배우로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스티븐 연이 물망에 오른 상태. 이들과 호흡을 맞출 여주인공은 오디션을 선발하고 있다.

제작 관계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만큼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개봉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연예계 집착상식을 소개합니다.

## IMAX카메라로 찍은 '덩케르크' IMAX서 봐야 실감 팍! 감독 팍!

"영화 '덩케르크'는 IMAX(아이맥스)에서 봐야 제 맛이!"

7월20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가 개봉한 이후 SNS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크게 공유됐다. 이를 상영하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 레이저관 좌석은 한동안 매진 사례를 이뤘다. 일반 상영관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때문이다. 왜 IMAX일까.

IMAX는 사람의 시선에 들어오는 최대의 크기를 뜻하는 '아이 맥시멈(EyeMaximum)' 또는 '이미지 맥시멈(ImageMaximum)'에서 나온 표기다. IMAX 상영관은 그만큼 큰 화면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 레이저관은 전 세계 멀티플렉스 극장 가운데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일반 상영관의 스크린이 대체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9:1인데 비해 IMAX관은 1.43:1이다. IMAX 레이저관은 가로 31m, 세로 22.4m로, 그만큼 세로가 잘려 보이지 않고 확장된 화면을 꼭 채운 영화를 보는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덩케르크'의 경우 IMAX 카메라로 전체 분량의 75%를 촬영해 IMAX관에 최적화된 영화다. 또 스크린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상영관 안의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영화를 즐기는 데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불편함이 없다.

또 음향시설 역시 실제 영화 속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안긴다. 대체로 5.1채널(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넘어 천장과 양쪽 벽면에 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생생한 음향과 음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캐나다의 IMAX사가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CJ CGV가 독점계약을 통해 그 기본 규격을 공급받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콤팩트 뉴스

### 호야 팀 탈퇴...인피니트 6인 체제로



호야

그룹 인피니트의 호야가 팀을 탈퇴했다. 인피니트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30일 "호야는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다른 길을 걷고자 했으며, 당사자와 멤버들은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인피니트 탈퇴 및 계약 종료(6월9일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피니트는 이미 재계약을 마친 김성규 장동우 남우현 이성열 엘이성종의 6인 체제로 운영된다.

방탄소년단 새앨범, 美 아마존 예약판매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미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예약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9일 오전 7시(한국시간)부터 아마존에서 다음 달 18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 '러브 유어셀프 承-her' 예약 판매를 실시해 3시간 만에 아마존 음반(CDs & Vinyl)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가수의 앨범을 아마존을 통해 공식적인 예약 판매로 진행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순위	제목	작가
1	언어의 온도	이기주
2	기사단장 죽이기. 1	무라카미 하루키
3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4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5	말의 품격	이기주
6	명견만리: 정치...탐구 편	명견만리 제작팀
7	보노보처럼 살다나 다행이야	김신희
8	오직 두 사람	김영하
9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
10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유홍준